

승리의 생활 시리즈 2

# 광야 이야기

Exemplary Tales from the Wilderness

James W. Knox 지음

고 정 인 옮김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승리의 생활 시리즈 2

## 광야 이야기

Exemplary Tales from the Wilderness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0. 10. 30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고정인

펴낸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http://www.ilovekjib.com)

■ ISBN 979-11-971322-0-9

■ 정가 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광야 이야기

## 1

우리가 승리를 유지하거나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성령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약속의 땅 입성 사이에 있었  
던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  
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  
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  
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1-4절).

우리가 이 사건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그 뒤에 침례를 받았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길의 각 단계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경험을 신약 시대의 거듭난 성도의 경험과 비교하면 의도된 유사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모두 그렇게 창조되었고,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하늘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구속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히브리서 13:5).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부하게 공급하십니다(빌립보서 4:19).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속되었고 침례를 받았으며 자유를 얻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렸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오늘날 세상



과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거짓 가르침은 자기 사랑을 비난하기보다는 강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매우 훌륭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께서 자기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임에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올바른 것(역대상 29:17), 과거 죄로부터의 분리(에스라 10:11), 우리의 영적 행복(시편 35:27),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와 자신의 궁핍에 소망을 두는 자(시편 147:11), 선포함을 통한(고린도전서 1:18) 혼의 구원(에스겔 18:23, 32; 33:11; 에베소서 1:5),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학개 1:8),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것(누가복음 12:32; 에베소서 1:9), 찬양과 감사의 노래(시편 69:30-31),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히브리서 11:6)와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자(골로새서 1:10), 순종하는 자녀(골로새서 3:20),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사무엘상 12:22)과 그들을 축복하는 것(민수기 24:1), 그리고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열왕기상 3:10)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마가복음 1:11)을 기뻐하시며 의의 희생물(시편 51:19)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이사야 53:10).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희생물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히브리서 10:6; 미가 6:7).

주님께서는 사악한 것(시편 5:4),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전도서 5:4), 진실함 없이 경배하는 자(말라기 1:10; 호세아 9:4),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데살로니가후서 2:12)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헛되기만 한 삶(전도서 2:1)과 혼을 빈곤하게 하는 세상의 쾌락(잠언 21:17)을 사랑하지 말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시편 103:21).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쾌락을 찾고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말들을 기뻐하면 주의 날에 해로운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이사야 58:13).

우리가 성적인 죄를 기뻐하거나(에스겔 16:37) 범법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면(로마서 1:32)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자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죽으며(디모데전서 5:6) 파멸을 맞이합니다(야고보서 5:5).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방탕한 삶(베드로후서

2:13), 춤추는 소녀들(마가복음 6:22),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사도행전 12:3)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일 년 혹은 한 시간 동안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전도서 12:1).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사도행전 12:3).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이 그러했듯이(히브리서 11:5)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갈라디아서 1:10).

주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셨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지 않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도록 창조된 목적에 맞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런 기쁨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 광야 이야기

### 2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던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즐거운 축복의 땅으로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며 바위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에 대한 불만은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 왔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러한 일이 일어난 날부터 이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Now, 지금)라는 단어는 매우 강한 인상을 줍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평생 그분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면 끝없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날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공급을 받으면 주님께 충성과 사랑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평선 저 너머에서 기다리는 기쁨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큼이나 지금도 틀림없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영원토록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아침에 받은 축복은 점심때 즈음 잊혀지고 내일의 소망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에덴의 놀라움 속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에게나, 타오르는 시온산 아래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갈보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지금 죄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매혹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사야 40:6; 베드로전서 1:24)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령님께서서는 이 문제들에 관해 말씀하신 의도를

밝히십니다. 오래 전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도 그들의 정욕처럼 실제적이고,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러했듯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탐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무덤으로 끌고 내려간 것은 그들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죄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신 완전한 뜻과 위배되는 것들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험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그리고 간음 등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성경 구절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조용하고 꾸준한 부패해 가는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루시퍼는 창조된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은혜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왕좌를 원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매우 좋았다고 여기신 모든 것들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교만과 원망과 정욕을 없애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육신에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부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악의 세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은 없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죽이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위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구속되었고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탐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그들을 추격하던 적들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맛보았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탐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산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았지만 여전히 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길 원하십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우리야의 살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다윗이 타락할 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정욕이 승리한 것입니다. 정욕이 잉태되었고 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욕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갈라디아서 5:24).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골로새서 3:2).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누가복음 9:23). 육신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을 장려하거나 품어서는 안됩니다(에베소서 2:3).

여기에서의 교훈은 구원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가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무의식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무한한 축복의 삶을 위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을 근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16).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9).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고린도후서 6:14-18).

죽을 것(고린도전서 15:53-54)과 질그릇(고린도후서 4:7)이라는 단어들은 육신이라는 용어 대신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명칭은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구원과 휴거 사이에 변하지 않을 우리의 본성을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다른 것이 아니며 다른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며(로마서 9:8)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요한복음 1:12).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었고(에베소서 2:3), 성경은 이러한 욕망을 육신의 죄들(골로새서 2:11), 육체의 더러운 것(베드로전서 3:21), 그리고 육신의 정욕(요한일서 2:16)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베드로후서 2:18)을 좇으며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일들(로마서 8:5)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심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썩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갈라디아서 6:8), 사탄의 손이 우리의 육체를 멸할 수도 있습니다(고린도전서 5:5).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라디아서 5:19).

우리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하며(마가복음 14:38)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요한복음 6:63). 육신은 항상 죄(로마서 7:25)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방향(로마서 8:8)으로 나아갈 것이며 성령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갈라디아서 5:17). 우리는 육신이 영구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갈라디아서 3:3)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로마서 13:14).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방침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고린도후서 7:1)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골로새서 2:23).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빌립보서 3:3), 오히려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해야 합니다(유다서 1:23).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로마서 8:12-13).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님 안에서 걷기를 바랍니다(갈라디아서 5:16).

가는 길에 쓰러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했던 구속 받은 사람들의 예가 우리를 깨우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더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 광야 이야기

## 3

정욕에 관한 고찰 이후의 구절들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해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고린도전서 10:7).

이 구절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음 책에서 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권고하시기 위해 택하신 문제의 일부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분에 대한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이제 자유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 앉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속하기 전에 그들은 파라오의 채찍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칙령에 의해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홍해가 그들 눈앞에서 갈라졌고 이번에는 그들을 쫓던 압제자들의 군대가 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뛰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행하신 것들 다음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주님을 무시하는 일상의 삶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어느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아침의 이슬이 낮이 되자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의 2절에 나오는 가사로, “아침의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 역주)

자신의 구세주를 경배해야 할 때, 먹기 위해 앓은 사람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분께 감사를 표해야 할 때, 마시기 위해 앓은 사람들이 새긴 형상 주위를 돌며 춤을 춘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 뛰놀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죄로 흥청대며 공개적으로 별거벗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각 인간의 마음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으며 언제든 튀어나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 예배, 섬김, 찬양, 업무, 묵상 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중해 있다면,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습니

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합니다. 혼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곳에서는 육체가 범법을 행할 시간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만약 불타는 산 아래에 앉아 있고 흔들리는 땅에 진을 치고 있으며 천둥과 같이 울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라면 세속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만약 이웃에게 내려진 열 개의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 자신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도망친 사람들이 전능자를 위한 자리가 없는 식사와 오락의 삶으로 이토록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거라면, 초자연적인 이적의 흔적조차 보지 못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실컷 먹고 마시지만, 그들의 발 밑에서 빵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개들만큼이나 구세주의 귀중한 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과 함께 앉아 불필요한 내용의 잡지를 읽거나 헛된 프로그램을 보지만, 자신을 불호수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단 한 순간도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목회자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활이 많으신 대제사장의 경이로움과 영광에 대해 전하지만 그들의 교회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강변, 쇼핑몰, 골프 코스, 야구장, 놀이 공원, 그리고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한 데 말입

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만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아마도 우리는 “설사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는 안 해요.”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은 채 몇 번이나 먹기 위해 앉았느냐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생명수의 강, 삶의 원천, 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얼마나 자주 마시기 위해 앉았느냐입니다. 짐승의 이미지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는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은 먹이면서 주님은 경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몸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음료는 마시면서 즉시 기도할 수는 없다면, 만일 우리가 노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손뿔아 기다리면서 설교나 기도가 더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낸 물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노는 데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할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열렬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자신을 살펴봅니다. 성령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 신중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빌립보서 4:4).

쉬지 말고 기도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7).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8).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린도전서 15:58).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골로새서 3:17).

이러한 권고는 헛된 말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과거 심판들이 신속하고 예고 없이 내려졌다는 점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누가복음 17:26-30).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들은 어떤 끔찍한 행동으로 인해 파멸되었을까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 행동들은 우리가 예상한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행동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 행동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승인된 활동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묘사된 가증한 일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것들이 시내산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마음의 문제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거나 그분께 헌신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후의 모든 악은 이 부주의에서 자라났습



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바, 백성이 앓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 광야 이야기

## 4

다음 구절을 읽어보며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린도전서 10:8).

이 권고는 민수기 22장-25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적은 믿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바위에서 풍부하게 물이 샘솟았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마른 땅을 가로지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공급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고 그와 동일하거나 더 심한 일이 자신의 왕국에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발락이라는

이름의 왕은 발람이라는 대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의의 샅을 갈망한 이 타락한 설교자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주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발람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축복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위대함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면, 발람도 그리고 발락도 그 나라를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히브리인들을 치도록 요구할 방법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이 타락한 사람은 여호와와 백성을 타락시켜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멸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남자들에게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여자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음란한 여자들과 간음할 기회를 그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께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이 등을 돌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2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과부가 된 여인과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속 받았고, 구원 받았으며, 사랑 받고,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신성한 공급하심 덕택에 생활하고 있고 셀 수 없는 유익이 있는 땅으로 여행하면서 창조주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멸망을 기뻐할 잔인하고 강력한 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적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승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행을 피하라(고린도전서 6:18)는 말씀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9:27)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며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성적인 죄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음행에 대한 35가지 경고와 간음에 대한 24가지 경고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명백한 위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여러 번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기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육신적 정욕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에 대해 알려 줍니다.

우상과 마찬가지로 음행은 마음에서 시작되며(마가복음 7:21) 성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관행을 삼가라고 요구하십니다(사도행전 15:20).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고린도전서 6:13).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고린도전서 6:18). 음행은 사람을 더럽히고(에베소서 5:3; 골로새서 3:5)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고 한 사람이 성화되는 기회를 앗아갑니다(데살로니가전서 4:3).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행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구속자에게 극도로 불쾌한 일을 기꺼이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간음하지 않고 미리 계획하고 생

각해서 간음한다는 것을 압니다. 보도에서 미끄러지거나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치는 것과는 다르게 간음은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적인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적인 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노래의 가사가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가 중대한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과 영화가 성경이 비난하는 관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발람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결국이 거짓 가르침은 육신의 정욕과 함께 방심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사망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발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성관계를 장려합니다. 텔레비전과 영화는 육체적 관계를 미화합니다. 설교자들은 성적인 죄를 비난하는데 너무 소극

적이고 교인들 수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사람들을 허용합니다. 인터넷은 클릭 한 번이면 지옥의 하수구에서 나온 듯한 모든 더러운 죄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은 둔해지고 불에 지저진 것처럼 됩니다. 육신이 승리하게 되고 사람들은 약속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떻든 주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디모데후서 2:22).

민수기 25장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창을 손에 들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했을 때,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때 진노하신 구원자께서 내리려고 하신 죽음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발람 같은 자들의 타락한 영향력을 막기 위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진리와 의를 위해 대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 광야 이야기

## 5

이제 다음 사례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고린도전서 10:9).

일부 사람들 중에는 바로 윗구절에 인용된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한 경고를 보며 자신은 결코 그런 죄들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적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실제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첫째,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왕좌를 나누어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며 우리가 그분만큼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무언가가 큰 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합니다. 그분께서 가증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규범이나 습관이라고 변명합니다. 사람들은 피해야 할 죄와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죄를 골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야고보서 2:10).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기 위해 그분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평과 간음을 나란히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성화를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죄들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함으로써, 성령님은 우리가 이 구절에 주어진 경고들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새긴 형상에게 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덜댄 적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불평하면 음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첫 번째 사건은 불 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 구원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 드러내는 모형으로 사용된 반면에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에서 성령님께서서는 그 때 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알려 주십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 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민수기 21:4-6).

문제는 낙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주님과 그의 동행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길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지만 그들의 혼은 그들에게 정해진 길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받은 축복을 순식간에 잊었고 여행길에서 제공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혼이 내뿜는 말들은 주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빵이 없다고 불평해놓고, 바로 자신들의 손에 주어진 빵에 대해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속한 심판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었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먹으면서도 이를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나 오해가 생기면 우리의 혼은 절망에 빠지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시험한 결과, 그분께서는 우리를 바로 잡으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간음이나 살인과 달리 불평은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모두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하지는 않지만,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장 심한 범법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만약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주어졌었다면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주장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힘

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면 여호와보다 더 훌륭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 왕좌를 갈망했던 루시퍼가 하던 말과 같은 뱀의 간교한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금지되었던 그 작은 한 가지를 잡으라고 욕망을 불리일으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투덜거리거나 징징대며 불평을 털어놓을 때, 인간은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매우 다르게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매번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의 소리로 들으십니다. “저였다면 그 일을 더 잘 처리했을 겁니다. 저였다면 더 친절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저였다면 더 많은 공물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저였다면 더 완벽하게 공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분히 주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분배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존중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불평하는 혼은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죄를 위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악의 목록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로마서 1:29-31).

어떤 괴물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로마서 1:21).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대신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또는 그들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왕좌에서 그분을 밀어내고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일단 자신의 왕국을 세운 뒤, 자기 사랑으로 푹푹 뭉친 고작 먼지 한 점 수준밖에 안 되는 지배자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께서 승리하십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불평이 우리가 왕좌에 앉아 있었다면 이 세계를 더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불평을 우리 주님과 같은 내용으로 알아 듣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을 성령님께서 상기시켜주시며 우리를 다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 불만의 생각과 말을 우리를 깨워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경고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 광야 이야기

## 6

다음 구절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이러한 심각한 경고가 있는 경우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린도전서 10:10).

저는 절대로 멸망을 당하기 원하지 않으며, 파멸시키는 자가 누구든지 그런 자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민수기 14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1절).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처럼 깊은 슬픔을 가져왔을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2절). 온 백성이 그들에게 불평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지도자들이 악랄한 짓을 저지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하고(2-3절).

정말 믿기 힘듭니다! 이전에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던 이들이 자유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강에 던지도록 강요받았던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가요?

불만의 장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들리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말하며 어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칼에 쓰러지게 될 거라며 애곡하지만 출애굽 이후로 그러한 운명을 겪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될 거라며 투덜거렸지만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는 현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들은 그저 불평하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참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토록 터무니없이 굴며 은혜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중한 피를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롭게 인도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은 인생을 술, 마약, 유흥, 간음, 게으름, 천박함, 그리고 허영심을 갈망하며 보내는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박해로부터 벗어나 그분을 따르게 해주었던 고통, 눈물, 수치스러운 일들, 쓰라린 수확, 그리고 절망은 이제 모두 잊혔습니다. 죄악의 용광로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아마도 그 당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나이트클럽은 순수함의 장소가 되었고, 술집은 의로운 교제에 적합한 장소가 되었으며, 공원이나 야구장은 일요일에 예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의 사슬로, 설교자의 말을 부담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를 불합리한 제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파라오 아래에 있던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마귀의 지옥으로 향하며 죄 속에 빠져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참 좋았는데 말이야.” 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4절). 우리는 이 교훈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는 리더는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세와 아론은 유능하며 준비된 채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속박의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대담하고 뚝뚝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충만함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할 헌신적인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에는 부모의 감시를 피해 죄를 짓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자신을 더럽힐 방법을 가르쳐주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반항적인

사람 역시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든, 그는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를 찾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평안한 결혼 생활, 그리고 훌륭한 간증을 가진 수많은 거룩한 여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여인들 모두가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죄의 길로 그 소녀를 이끌 이 세벨과 헤로디아 같은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 롤 모델, 상담자, 그리고 조언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리더가 여러분을 이끌기로 선택했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목록에 포함된 마지막 경고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속박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불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 사람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자신의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간구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회중에게 구세주를 따르고 믿으면 그들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빛, 희망, 승리, 기쁨, 힘, 그리고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10절). 우리의 마음이 이집트를 열망할 때 목회자, 사랑하는 형제, 경건한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성경, 그리고 주님까지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갈망하며 우리의 육신은 만족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모세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할 정도로 격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는 그 제의를 거절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의 격노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20-23절).

이것이 오늘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우리는 봅니다(히브리서 7:25). 우리의 사면은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했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충만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25절). 좁은 길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곧장 가는 길은 닫힙니다. 이제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거룩한 땅을 이리저리 헤매며 사십 년의 기간이 걸려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27절), 그들의 불평하는 말(27절), 내게 불평한 자들(29절), 그리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36절)때문이었습니다.

옛 삶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속 욕구로 인해 광야에서 사십 년을 헤매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행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적인 자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실제

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리석어 자신들의 위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서둘러 끝내고 몇 가지 빈약한 약속을 한 뒤 자신이 받을 축복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모하게 행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매(39-40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제하게 굴고 우리를 징죄하시며 화를 내신다면 우리는 알려 주신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저렇게 생각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참된 상태를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거나 그분께 순종한다면, 이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쉽게 이 잘못된 상태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사람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간에 모든 불순종한 자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불순종

이 결코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41-45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이 사막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반역자들아, 이제 너 스스로 갈 길을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혔으며 그들은 사막에서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와 육신의 길을 원할 때 그것은 주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을 걷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적절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안을 모두 거부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왜 이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택한 후가 아니라 유혹의 길목에서만 탈출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따라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히브리서 2:10.)



# 광야 이야기

## 7

다음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고 목록을 요약해 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린도전서 10:11-12).

우리는 먼저 본보기라고 번역된 ensample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흠정역에만 보존된 위대한 고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예를 뜻하는 example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여러 개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한국어 번역에서는 한국어다움을 살리기 위함인지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역주)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몇몇 사람들의 실패한 예시가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가르쳐주실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행동한 사람들의 승리와 성공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지만,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를 사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자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무엇을 하든지 그가 했던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시는 본보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이 더 수치스럽게 느끼라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 이 사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훈계하는 것은 “잘못을 경고하거나 알리는 것”입니다. 위 구절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인지 우리의 잘못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며 경고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에게 존재했던 모든 약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훈계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쓰라린 심판을 받고 여러 명이 죽어야만 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다면, 비록 우리가 같은 비참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고 해도, 우리의 단점은 온유한 책망의 말만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역한 이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신뢰할 수 없다고 책망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자신을 망치기 전에 온유함으로 은혜롭게 경고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훈계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반대하여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조언자(이사야 9:6)이신 분께서는 우리의 이성, 의지, 지성 및 마음에 호소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조심히 행동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2,000년 또는 그 이상,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1,000년이나 떨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기에는 이상한 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범법의 일꾼들을 제거하시기 위

해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실 때 세상의 제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49절에는 그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표적에 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세상 끝과 올바르게 연결했습니다(마태복음 24:3).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복음 28:20).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또는 각자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들 각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나 어떤 성도의 삶이 끝나는 순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상의 끝에 대해 두 번의 예언적 언급이 있으며, 둘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가리키는 듯합니다(시편 19:4; 이사야 62:11). 이것은 모두 흥미롭지만, 이 중 어느 구절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과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승리(고린도후서 4:4)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지배하던 이 세상의 신의 권능을 쳐부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끝을 알리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및 부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재창조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영적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세상의 끝과 새로운 것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 중 어느 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어진 가르침을 다시 주의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the ends of the world)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영어 KJV에서 사용된 끝은 단수 the end가 아니라 복수 the ends입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한국어다움을 살리기 위해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구절이 그런 경우들 중 하나입니다. - 역주) 이것이 어떤 차이점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장 27절은 세상의 모든 끝(all the ends of the world)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라고 기록하며, 로마서 10장 18장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the ends of the world)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첫 번째 구절에서, 세상의 끝은 이방 국가의 모든 백성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만약 두 개의 언급 모두가 지상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사람을 언급하는 거라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우리에게 세상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우리의 간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은 우리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동네에서 이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켜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백성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

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 우리는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 사람이 얼마나 빨리 었나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때문에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교훈은 부적절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 있는 발을 쳐다보고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 스스로 똑바로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단어는 바로 자(he)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즉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서 있다고 여길 때에 대한 경고는 있습니다.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서 있거나 계속 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지하고 계

신 걸까요? 내가 내 두 발을 지탱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밑에 있는 굳  
건한 반석이 힘을 제공하는 걸까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걸까요? 아니면 나는 영원하신 팔에 기대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질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의 요약을 통해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패  
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님을 무시했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빨리 잊어버렸으며, 그들  
의 구원을 모세나 자신에게 또는 우연에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께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라지자, 그들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15:5).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예레  
미야 10:23).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  
다(잠언 3:5).



이 구절들과 수십 개의 그 외에 구절들은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께 모든 확신을 쏟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의 도움과 힘 없이도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 광야 이야기

## 8

이제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구절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 구절을 여덟 개의 부분 또는 진리로 나누어 그 진리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요약된 간략한 내용 중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험(temptation)은 각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2.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의 본질은 모든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

라 공통적입니다.

3.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4. 그분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죄에 직면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5.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6.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7. 피할 길은 시험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순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나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한다면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악한 주장, 아침 또는 실제적이거나 명백한 좋은 것들을 제안

하며 유혹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 방식을 생각해봅시다. 뱀은 금지된 열매가 먹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금지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시키며 그녀에게 아첨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신들처럼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험은 또한 “본능대로 살기를 권유하는 것, 또는 쾌락이나 이득을 얻는데 필요한 악한 일을 하게 유혹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광야에서 뱀이 그리스도께 권유하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지실 수 있는 왕국을 보여주었고, 배고프신 그분에게 음식을 권했으며, 사람들의 경배를 얻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빵,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을 위한 권력, 멸시받는 사람을 위한 찬사, 이들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경우, 시험에서 제공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는 마귀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도 같은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일부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잠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야만 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의 매력이 수천 가지 방법으로 포장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한일서 2:16).

너무 많은 사람이 세상이나 마귀가 각 개인을 위해 특별한 종류의 유혹을 기획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삶에서 작동했던 것과 같은 오래된 속임수는 계속해서 임무를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영과 전쟁을 벌이고 주님이 불쾌해하시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만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리석음이나 지나친 욕망의 대상을 좇습니다. 가장 쓸데없는 인간이 교만으로 가득차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누군가가 끔찍한 곤경에 처해있다는 것이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어떻게든 더 많은 존경, 인정, 돈, 혜택 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적인 육신, 눈, 그리고 교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파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공통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에텐의 동산에 있던 첫 번째 남자와 여자와 광야에 계시던 영광의 주님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소녀와 나이 든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당신이 보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까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우리 시대의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시험이 닥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 광야 이야기

## 9

복습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책의 주석이나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들에는 많은 신화와 거짓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비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절대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는 “주님께서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절대로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관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절을 부주의하게 읽음으로써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이나 구절의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지 않은 구절을 붙들고, 그분께서 그들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실 때 그분은 진실하지 않다고 여겨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부분은 생략한 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부분만 인용하고(로마서 8:28), 종종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부분은 생략한 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부분만 말합니다(요한복음 8:31-32). 또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라는 부분 없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부분으로만 위로를 받습니다(빌립보서 4:6-7). 이와 같은 예는 매우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잘못 읽으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택하신 주님의 큰 도움 없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실제로 언급된 것은 시험이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험받는 자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취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제안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 의의 길을 거절하면 정욕이 죄를 낳고 죄



가 죽음을 초래할 것임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죄로부터 도망치기보다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모든 시험과 함께 즉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온다는 성령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죄의 꾀임뿐만 아니라 육체에 굴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수준의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사탄은 우리의 한계를 초과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행할 권한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죄를 벗어날 경우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육신의 모든 제안을 피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들을 때 몇 가지 분명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피할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무언가가 그분을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지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그분의 뜻과 방법에 일치시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이 가장 좋고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6절은 시험을 당하는 혼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날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과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갈라진 길을 보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여행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교차로에 명확한 표지판을 달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네 뒤에서 나는 말을 네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

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이사야 30:21). 죄의 길을 가리키는 표지는 그들에게 곧바른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것입니다(잠언 2:13). 주님께서 제공하신 피할 길로 향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갈라디아서 5:16).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선포합니다(요한일서 1:7).

또한 피할 길(escape, 문맥에 따라 비상구, 탈출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 역주)이라는 단어는 시험과 죄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 숙면, 편안한 신발 또는 휴가를 생각할 때 피할 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라는 단어는 불타는 건물, 가라앉는 배, 칼을 휘두르는 강도 또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즐길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할 위협으로 본다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린도전서 6:18),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린도전서 10:14),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디모데후서 2:22), 그리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디모데전서 6:10-11). 우리가 위

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듯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망친다면, 피할 길은 우리 앞에 넓게 열리며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분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3). 이와 비슷한 경고가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히브리서 2:3);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히브리서 12:25).

각 구절이 피할 길이 있었지만 믿음이나 피하려는 마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을 다루고 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파멸된 사람들과 히브리서의 첫 번째 구절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모두 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죄를 짓도록 미리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무언가에 찬성하여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첫 번

째 죄와 모든 범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매우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제공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회복을 반복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승리만이 따를 뿐입니다.

# 광야 이야기

## 10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엄청난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신실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확인해보기만 하면 됩니다.

신실하신 분은 “진리와 의무에 굳건히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은 “거짓과 속임 없이 충실하시며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은 “의무나 섬김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같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은 “신실한 종으로서 명령을 정확하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분께서 제정하신 의로운 법규나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위 중에 그분께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건 없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협약, 조약, 계약, 서약 등등의 모든 약속을 준수하시고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풍성한 삶, 영원한 삶 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기록하신 글과 그 글에 담긴 영이 정확히 일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그분께서는 그분의 마음속 사랑과 기록된 그분의 말씀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맞게 신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제정하셨으며 수행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은 “신실한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결혼 서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교회는 그분의 정혼한 신부이며, 그분께서는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나타내시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은 “변함없고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아버지, 친구, 목자, 사제, 제사장, 목사, 대장, 그리고 다른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며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분은 “신뢰하고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속성으로 하나님을 정의했으므로, 이제 그분의 인격 중에는 이 측면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놀랍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선포하는 신약 성서의 구절과 일치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분의 말씀과 길과 가르침은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십니다(시편 119:86).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잠언 14:5).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십니다(시편 119:138).

이스라엘은 수 세기에 걸쳐 계속 실패했지만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구속되었고 영원히 보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이사야 49:7).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는 말씀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신실함의 정의와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의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디모데 후서 2:13). 우리의 부족함이 그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한일서 1:9).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참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누가복음 16:10). 그분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과 시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17). 우리가 시험받을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보다 우리를 돕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에 신실하시고 또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사라를 비롯한 많은 이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히브리서 11:11);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히브리서 10: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이시고(요한계시록 1:5), 신실하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한계시록 19:11)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훈계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베드로전서 4:19).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자주 죄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번의 승리를 거둔 뒤 계속해서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신뢰 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길고 가장 불쾌한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그들에게 회초리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셨고 계속해서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

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우리의 수많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함께 징계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나 계곡에서나 이 놀라운 진리를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 광야 이야기

## 11

이 위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 공부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음 구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린도전서 10:12).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시편 1:1).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니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로마서 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 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고린도전서 7:37).

이 세 구절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람들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시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구절에서 우리는 축복은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자리에 서 있기로 선택할 때 얻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적절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절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정, 의지의 복종 및 목적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이 모든 요소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서거나 넘어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서도록 마음을 정하고 그 결정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음 목적을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주님을 섬기고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히브리서 10:11)
-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사도행전 5:25)
- 그분의 말씀을 외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사도행전 24:21)
- 악한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출애굽기 8:20)
-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출애굽기 33:21)
-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을 섬기기 위해(민수기 16:9)
-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시편 94:16)
- 거짓 경배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예레미야 7:2; 26:2)
-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사도행전 25:10)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이 9개의 목록이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특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모두는 이 훌륭한 것들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에 의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시편 130

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곧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까?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은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진리는 우리가 구주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복된 진리는 우리가 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대가를 모두 치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시편 24장 3절-5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손이 충분히 깨끗하거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혼도 헛된 것이나 속임수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설 수 있습니다(고린도후서 5:21; 고린도전서 1:30-31).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믿음(믿어야 할 진리들과 원칙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6:13).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는 이와 비슷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로마서 14:4), 우리가 분쟁하면 우리는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마가복음 3:24-25).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부주의(고린도전서 10:11-12)나 위법 행위(에스라 9:15)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에베소서 6:11-13).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베소서 6:14)에 확고하게 심어져 주님을 두려워하며 서 있을 때(시편 4:4)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언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내 자신을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 받을 때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라(하박국 2:1).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카이사르의 재판석(사도행전 25:10) 앞에 담대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한 조력자를 보내주

시거나(민수기 11:16) 여호수아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모든 적들에 대하여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실지도 모릅니다(여호수아 1:5).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다음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열왕기상 10:8).

## 광야 이야기

### 12

이제 다음의 긴 여정(출애굽기 32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고린도 전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17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야고보서 1:12-17)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현재 시제의 약속인 복이 있나니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 그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야 받을 수 있는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택한 각 사람에게 즉시 축복을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죄를 거부할 때마다 이 은혜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시험을 견뎌낸다는 말은 시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무겁고 달갑지 않은 짐으로 여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견뎌낼 때 즉시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거부하고 피할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과 생명의 관에 대한 약속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얻은 관입니다. 사실, 이 관은 금욕에 대한 보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실한 감독을 위해 주어지는 관을 갖출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재능이 없을 수 있으며(베

드로전서 5:4) 순교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요한계시록 2:10), 시험에 저항하고 극복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밝고 빛나는 왕관을 주실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분께서 계명을 범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대한 관을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작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음 구절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아담의 모든 아들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 생각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모든 시험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단순히 소리 내어 말하는 게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시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여자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녀가 그 열매를 취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열매 취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 안에는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술 마시는 여자는 술병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그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술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업가에게 뇌물을 주고자 합니다. 그가 그 뇌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뇌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단련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 그분의 마음이 매우 기뻐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루하고 귀찮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미없는 시험은 에덴에서 일어났던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된 것과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뱀과 육신을 거부할 기회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일상생활을 중요한 영적 전쟁터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지루하고 시시한 시간은 죄에 대한 승리와 축하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여기서 우리는 시험(temptation)이라는 단어에 대한 두 가지 올바른 정의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은 사람이 갈망하는 무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망이 없습니다. 시험은 매력이 있지만 죄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마태복음 4:3)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죄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실 것이지만(로마서 7:5),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계명 중 가장 적은 것 하나라도 어기도록 유혹하거나 자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았고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았으

며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범법을 권하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넘어진다면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거나 우리가 서있는 땅을 아래로 끌어 당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말을 순순히 따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비난 받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시험을 낼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도 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가 탐내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피할 길을 주시며 그 길을 따라 달려가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한 선택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고정된 법률이며, 죄책감, 책임,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입니다.

첫째, 우리가 정욕의 방향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는 순간, 무언가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망은 주어진 유혹과 연합하여 죄를 낳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육체적 행동으로 합쳐지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그 결과는 아이의 잉태입니다. 아이를 잉태했음을 알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기 까지 몇 달이 지나갈 것이지만, 그 만남으로 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이미 오래전에 엄마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많은 변화가 엄마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욕과 시험이 매우 짧게 연합한다 해도 그 결과는 죄의 잉태입니다. 죄가 잉태되었음을 알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죽음으로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악은 이미 태어난 것입니다. 값을 치르기 오래전에 이미 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가 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 의해 광야에서 세 번 시험 당하셨을 뿐 아니라(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평생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히브리서 4:15). 시험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게 죄입니다.

셋째, 우리는 LSD(Lust-Sin-Death, 정욕-죄-사망)의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 임신의 예를 사용했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사고나 불행을 통해 태아를 잃을 수도 있고 산달이 다 찻음에도 사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력이나 본성에 대한 애정이 없는 다른 여성은 아직 자궁에 있는 아기의 삶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은 잉태합니다! 죄는 잉태합니다! 유산, 사고, 낙태, 거짓 임신 등은 없습니다.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그것은 죄이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 보상, 간증 그리고 기회의 일부는 죽게 됩니다. 구원 받았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죄의 값은 항상 사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 구절은 앞뒤의 내용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서 등장한 구절들을 잘 읽어 보지 않고 시험에 빠지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한 이어 나오는 구절들이 말해주는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읽어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왜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서서 세상이나 육체 또는 마귀로부터 무언가를 찾으려 겁니까? 이 어둠의 존재들은 우리에게 줄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제안하는 것을 받으려고 달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온전한 선물은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아들에게 그것들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만족을 찾고 모든 축복의 근원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오래전에 주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고 탄식하셨습니다(예레미야 2:13).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소망과 기쁨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7:37-38).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사랑, 기쁨, 평화, 은혜, 소망, 위로, 삶, 행복, 만족, 자족, 그리고 인생까지 참으로 모든 좋은 선물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선물은 오직 빛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시험을 받는 순간, 그분을 바라

보고 우리를 파멸시키기만 할 뿐인 제안에서 멀리 도망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요한복음 14:6).

도서출판 킹제임스

# 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93	바울의 기도	W. H. Griffith Thomas	160	7000
94	광야 이야기	James W. Knox	104	5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고 정 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
- 역서: 영의 세계, 믿음 사용 설명서





